

단신

'불교문화의 이해' 발간

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다)는 최근 청소년들의 문화재에 호환 등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불교 문화의 이해>라는 제하의 지도자용 교재를 제작, 선보였다. <불교문화의 이해>는 불교건축 불탑 불상 불구에 대한 단어적 의미와 역사적 유래, 쓰임새를 그림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한 것이 특징이다. 이 교재는 당초 전지크기의 교육용 책으로 제작할 계획이었으나 예산 문제로 A4용지에 복사처리해 선보임에 따라 청소년지도자들의 어려움을 사기도 했다. (02)723-6165

부산대불련 32돌 문화제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부산지부(지부장 박진현)는 26일 동아대학교 체육대학 강당에서 북녘어린이들기 사업기념 초청법회 및 문화제를 가졌다.

32주년 창립기념 대불련제를 겸해 열린 이날 법회는 각 지회 회원들과 청년불자들이 동참해 북녘어린이들을 위한 모금활동을 벌였다.

또 창립기념행사로 연극공연, 노래경연 등 문화제를 통해 젊은 불자들의 단합된 힘과 의지를 한껏 펼쳤다.

청보리 봉사단원 모집

삼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보각스님)은 청소년 봉사단체인 청보리봉사단 97년 4기 회원을 11월까지 모집한다.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활동하고 있는 청보리봉사단은 1995년에 발족해 1천여명의 회원을 배출했다.

회원들은 월~금요일 가운데 봉사 가능한 시간에 자유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다. (02)421-6077

어린이지도자전·선재모임 '전래놀이 한마당' 현장

"전자오락보다 훨씬 재밌어요"

"오락게임보다 시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너무 쉽고 신기한 놀이들이 많이 즐거워요." "처음 해보는 것들이지만 금방 배울 수 있고, 잔디밭에 마음대로 뒹굴며 점수에 신경쓰지 않아서 좋아요."



30여가지의 전래놀이가 펼쳐진 창경궁 잔디밭에서 새싹불자들은 동심(童心)을 마음껏 그려냈다.

19일 서울 창경궁 잔디밭.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연맹회 서울지부(회장 설봉스님)와 선재연구모임(회장 해관스님) 주최로 열린 '97 어화동동·선재전래놀이 한마당'에 참여한 서울·경기지역 34개 사할 1천여명 어린이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여기에 동참한 부모 50여명도 연신 호응하고 즐거움 표정이다. 마치 '누가누가 더 재밌게 노냐' 경기가 하듯 6명씩 조를 나눈 새싹불자들은 16가지 전래놀이가 준비된 '모듬놀이마당'을

닭싸움등 즐기며 1천여 동심 '활짝' 다함께 뒹굴며 협동심·이타심 키워

둘며 서로 부딪히고 넘어져도 아픈 줄 모른다.

후호 룡놀이 탐쌍기 여왕별닭싸움 지네걸음 건줄놀이 등 흥미진진한 놀이 가운데 아이들에게 단연 인기있는 종목은 인간다리타기와 돼지씨름.

'인간다리타기' 게임은 아이들이 서로의 허리를 붙잡고 상대팀의 '인간 줄'을 끊기 위해 팔에 당기는 게임. 끊어지지 않으려고 친구 허리를 꼭꼭 부둥켜 안아 본다. 결국 앞 사람을 붙잡았던 힘 만큼 '과당'하고 큰소리

를 내며 뒤로 넘어져 버리지만 아이들은 연신 깔깔대며 낙담 위를 뒹군다.

작동들이 가장 많이 물린 돼지씨름 놀이. 두 팔을 다리 사이에 넣고 앉은채 몸으로 상대를 밀어 쓰러뜨리는 이 게임에서는 여자 어린이들 사이에 두고 펼쳐는 남자어린이들의 열띤 구애(?)모습에 부모님들이 그만 참을 수 없는 웃음보따리를 풀어 놓아야 했다. 게임 시작부터 눈여겨 봐 둔 여자아이에게 먼저 공격해 보지만 '흑기사'를 자처하는 또다른 남자친구의 공격에 그만 넘어지기 일

쭉. 대역습(?)의 현상이 거듭되면서 '나'라는 의미 외에 '모두'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전통전래놀이 속에서 협동심을 키워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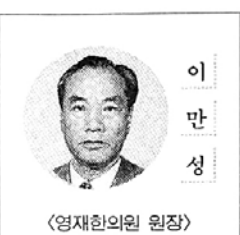
선재연구모임의 유지선사무국장은 "서구의 기계적 놀이에 익숙해진 새싹불자들에게 전래놀이를 통해 어린이의 동심을 되찾아 주고 싶었다"며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잊혀져간 놀이들이 도심속의 사할, 학교, 가정에서 놀이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선재전래놀이 한마당은 과외공부며 학원 강습에 잔뜩 응크려 지내며 지친 요즘의 어린이들에게 푸른 가을 하늘아래 동심을 마음껏 그려낼 수 있는 장이 되었다.

김정은 기자

건강 365일 <5> 슬임

옛부터 스님들이 건강식품으로 애용하는 자연식을 꼽으라면 슬임을 들 수 있겠다. 슬임은 우리 신체기관 중 특히 간에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간이나 담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몸안의 콜레스테롤 등의 노폐물을 분해시키고, 혈액을 정화시키는 특효가 있다. 때문에 고혈압 동맥경화 증상에 더 할 나위없는 성약이다.



<영재한의원 원장>

평소 한의원을 자주 찾던 김노인이라는 분이 있다. 그분은 오랫동안 고혈압으로 고생하다가 결국 증상으로 쓰러졌는데 수족마비와 언어장애로 앓을 태우고 있었다.

능이 있다고 해서 먹었는데 자신에게는 효과가 없었다는 하시는 것은 내 체질에 맞지 않아서 그렇다.

같은 병이라도 체질에 따라 다르다. 슬임은 '태양인' 체질과 공합이 맞다. 태양인으로 앓을 태우고 그런 사립들에게는 슬임이 만병통치

노폐물 분해·혈액 정화작용 중풍 비만 탈모 등 치료효과

아보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하자 답답한 마음에 나를 찾아왔고 나는 슬임을 권했다. 진맥을 해보니 체질적으로 공합이 맞았다. 한달 후 김노인의 팔이 정화를 했다. 후두통과 수족이 훨씬 부드러워졌다. 것이다. 혈압도 내리기 시작했다. 5개월 후에는 혈압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지팡이를 잡고 걸어다닐 정도가 됐다.

약이라 할 만큼 성약이다. 간이 허약하면 신경통, 풍기, 습담, 혈액순환 장애를 앓기 쉬운데 그런 환자들에게 슬임은 뛰어난 효능을 보인다. 또 비만 노인성치매 빈혈 탈모 치료약으로도 우수하다.

음식에도 공합이 있듯이 약에도 공합이 있다. 밀가루 음식만 먹으면 체한다든지, 생선만 먹으면 알리지 가려움증이 생긴다든지, 남이 먹고 효

민간요법으로는 솔잎차와 솔잎술을 들 수 있다. 솔잎차는 솔잎을 넣어 끓여 마시면 되고, 솔잎술은 잘게 썬 솔잎 30g과 꿀 1/2컵, 소주 1.8l를 병에 담고 서늘한 곳에서 한달 정도 숙성시킨 다음 술을 걸러내고 하루 3번 소주잔에 한잔 정도씩 마신다.

만화 100년경 이향원



대머리의 고민 옛날 어떤 사람이 대머리가 되어 겨울이면 춥고 여름이면 더위와 모기, 벌레 등에 밤낮으로 시달려 심히 고통스러웠다



내가 어쩌다 대머리에게 걸려서...



그렇게 고민한다고 머리가 나겠소? 건너 마을에 여러 가지 방술(方術)을 잘하는 명사가 있다면 한 번 찾아가 보시오



그런 명사가 있는 줄도 모르고 여태...



선생님 제발 부탁입니다 이 대머리 병을 좀 고쳐 주십시오



머리털이 없는 고통이란 정말 참내하기 힘들습니다



이것보시오 나도 그 병으로 고통 받고 있대요



말할 내가 그 병을 다스려 내게 할 수 있다면 먼저 내 병을 다스려 걱정을 없앴을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아 생노병사의 굴레 속에서



오래 살고 죽지않는 갖가지 방법을 구해보다가



수소문 끝에 온갖 병을 다 고친다는 도인을 찾아가서



생사의 걱정을 덜고 오래오래 살아 죽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나도 그 덧없는 생노병사를 걱정해서



갖가지로 영연히 사는 곳을 찾았으나 끝내 찾지를 못했소



그대를 고칠수 있다면 내가 그 병을 고친다음 그대 병을 고쳐 주겠소

이제 마저 저 대머리를 걱정하는 사람이 스스로 괴로워 하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여성 질병의 원인과 향요법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생리불순,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없어지며 피가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나에게 어떤 증세가 있을까?

- 해당되는 증상에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없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 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 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 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활력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뻣뻣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있다. 18. 당뇨와갑상선고통받는다. 3가지 이상 관련되는 문은 필히 상담을 받으십시오.



향비를 사용한 체형담

저는 1남 1녀를 둔 가정주부입니다. 몸이 약하고 힘든 탓인지 2-3년 전부터 불면증과 방광염이 생기면서 얼굴에 기미가 끼기 시작하더군요. 백방으로 노력하였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어요. 그래서 무비비 상태로 두고 있었는데 언니가 한 약재 성분으로 만든 '향비' 라는 배꼽에다 착용하는 제품이 있는데 먹고 바르는 약이 아니라서 부작용이 없을 것이라고 사용해 보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반신 믿고 하는 마음으로 착용해 보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불면증이 없어지고 먼저 사람들로 부터 피부가 고쳐졌다 예뻐졌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제가 보아도 얼굴도 잘 받고 기미도 갈라지고 혈액이 잘 돌고 있어서 생활에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약 6개월이 되었는데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끈기 있게 사용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착용할 예정입니다. 다 시한번 향비에 고마움을 전하면서 저처럼 기미, 불면증, 방광염, 생리통으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꼭 권해보고 싶은 제품입니다.

서울시 도봉구 방화동 272 신동아 APT 박지희

제품문의: (株) 고려물산, 한국 방향연구소 / 수신자 부담 02) 755-9821, (080) 200-4545

앞서가는 불자들의 필독잡지- 불교와 문화 1997/ 가을호

불교와 문화는 우리의 삶에 오늘을 점검하고 내일을 내다보는 마태지향적인 잡지입니다. 불교를 바탕으로 우리문화의 참가치를 널리 알리고 일깨우기 위해 현실의 제문제에 대한 불교적 해석과 그 대안을 제시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Content (화보, 지상논쟁, '97정정운동, 특별기획, 시사칼럼, 불교계 진단2, 인물포커스, 특집) and Details (목주 수각, 장인정신이 살아있는 나무의 아름다움 속으로, 불교사상사 논쟁 시리즈6, 조선조 성리학의 불교의心性論, 깨닫는 마음, 깨닫는 세상, 백양사, 경주남산, 속초, 논산대회 이모저모, 종교간의 갈등해소방안을 제시한다, 이 시대의 진정한 신앙인, 탁발한 스님과 종교평화의 길, 사랑... 그리고 겸손한 정부를 원한다, 한국의 미, 절제된 미의 세계, 외당(瓦堂), 진리를 찾아 근본을 지닌 불교수행자, 설장 스님, 김시습, 현대인과 중독, 현대인에게 나타나는 중독증에 대한 불교적 해법 제시)

정기구독 신청요령: 먼저 아래의 은행계좌번호로 구독료를 입금하신 후 전화로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세요. 전화 02-719-2606, 전속 02-719-5052. 구독료: 1년(4호간) 32,000원. 송금계좌: 국민은행 827-25-0006-047, 외환은행 189-13-02885-0, 우체국 012245-0090499-11, 농협 069-01-197161, 예금주(제) 대한불교진흥원, 지로번호 7630688